

**<보 도 자 료>**

**1970년대 전주지역 과거사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故한종호 · 한보만 형제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일정>**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10분**

**전주시청 브리핑룸**

**<주최 단위>**

**故한종호·한보만 유가족,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담당 :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010-8639-0214 / onespark98@gmail.com

## [기자회견 취지 및 설명 자료]

### ● 당시 정치적 상황

- 1960년대 말부터 1972년 10월 유신 전까지 독재 체제를 위한 박정희 정권의 준비시기.
-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습격 사건이었음.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에서 강행하던 3선 개헌에 대해 김영삼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1969년 6월 20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국회의원에게 신원미상의 괴한 3명이 질산을 투척하려 했으나 차량에만 손상을 가했음. 사건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며 당시 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혹만 남았음.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상대였던 김대중 후보를 금권 선거를 통해 이긴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같은 해 5월 25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국민들에게 부여받음. 이에 독재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기 어려웠던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신 헌법이 강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평가.

### ● 기자회견 취지

- 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71년도 사건처럼 전주 등 전북지역에서 정치적 활동 등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호소.

### ● 진실·화해 위원회 관련 내용

#### 1) 연혁

-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12.01. ~ 2010.12.31.)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2020.06.0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 2020.12.1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으로 위원회 재출범
  - 2020. 12. 10 ~ 2022. 12. 9. :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기간

#### 2)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故한종호·한보만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유가족 발언문

1. 안녕하세요. 저희는 故한종호, 한보만 형제의 유가족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1971년과 1974년도에 전주와 임실에서 발생한 故한종호, 한보만 형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2. 故한종호는 3년간 전주 신민당 소사로 재직 중에 1971년 4월 29일 밤, 당시 전주의 공수내다리 밑에서 민주공화당(이하 공화당) 소속의 폭력배 3명의 끔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누나와 여동생 이 보는 과정에 입었던 잔혹한 폭행 피해로 인해 이후 22일간 처참한 고통 속에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후 화장 되었습니다. 당시 고인을 해친 범인 3명은 숨어 버렸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고인이 사망한 후 바로 사건을 종결한 뒤, 수사기록도 삭제시켰습니다. 게다가 고인의 학적부, 입퇴원 기록, 화장 기록까지 삭제 또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은 이 사건이 고인의 정치활동에 의한 것이며,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진실규명을 위해 움직여왔던 저희 유가족은 최근 2년간 공화당 소속의 괴한들에 의해 발생한 25개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모두 故한종호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8건의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어 재심이 진행되어 판결에서 가해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나머지 17개의 사건 역시 재심 중에 있는데, 이 사건들 모두 공화당 소속의 폭력배들에 의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수사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

달받게 되었습니다.

4. 故한종호의 사망 2년 8개월 후, 전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남동생 故한보만은 1974년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간음정 마을에서 동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된 형의 사건과 같이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망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故한보만도 형과 같이 신민당과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故한종호의 죽음보다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5.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가족을 잃으셨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두 아들의 학업과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두 아들의 사망 사건, 그 이후부터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유가족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고인들의 죽음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 아울러 저희는 전주 시민 여러분, 고인들의 동문 여러분, 그리고 과거 신민당과 현재 민주당원 여러분에게 호소 드립니다. 故한종호, 한보만 두 형제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시 전주에서 고인들을 알거나 함께 신민당 활동을 하셨던 당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故 한종호, 한보만의 학교 동문들께도 고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은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면 연락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아울러 70년도 초반에 정치적인 이유로 고인과 같이 유사한 피해와 고통을 입은 분들이 있다면 역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

## 故 한종호 사건 개요

시 기	내 용	비 고
1953년 2월 4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출생	
1961년 4월 3일	전주 남국민학교 입학	
1967년 2월 15일	전주 남국민학교 졸업	
1967년	송실고등공민학교 입학(추정)	전주에서 누나, 여동생, 남동생(한보만)과 함께 자취.
1970년	송실고등공민학교 졸업(추정)	
1969년~1971년	재학 중 신민당 전북도당에서 활동	선거 홍보 등 활동 참여
1971년 4월 29일	○ 밤 9시 경, 전주 공수내다리 밑에서 괴한 3명에게 머리를 벽돌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함. ○ 밤 11시 경,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학동 파출소로 추정)에 사건 신고.	누나와 여동생이 사건 목격함.
1971년 5월 10일	전주 성모병원 입원. - 사건 후 입원 전까지 심한 두통과 통증 호소. 입원 후에는 구토, 호흡곤란, 근육 경련 - 입원 중 괴한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협박함. - 유청 국회의원 등 신민당 관계자들이 고인의 입원 중 병문안을 왔음.	의사는 이미 뇌에 염증(뇌수막염 추정)이 심각해 수술이 늦었다고 함, 유청 의원도 의사에게 같은 얘기 들었다고 함.
1971년 5월 19일	퇴원 후 전주 자취집에서 요양. - 사망 전에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폭행 사건 전부터 민주공화당 소속 인물들에게 미행을 당했고 '신민당 활동을 그만두라'고 협박했다는 말을 남김.	
1971년 5월 22일	전주의 자취집에서 사망함. - 사망 후 전주 화장터에서 화장함.	
1971년 5월 23일	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후에 전주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과 '합의' 하라는 서류를 부모님에게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故 한보만 사건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1956년 6월 19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출생	
1963년	갈담초등학교 금기분교 입학	
1969년 2월 11일	전주 남국민학교 졸업	2학년 때 전학
1969년 3월 5일	전주 영생중 입학	
1969년~1971년	한종호와 함께 신민당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됨.	
1972년 1월 14일	전주 영생중 졸업 - 형 故 한종호 사망 후에도 전주에서 여동생들과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음.	
1972년 3월 4일	전주 영생고 입학	초2년부터 고2까지 장학생으로 학교 재학
1974년 1월 21일	전주 영생고 2학년 재학 중 겨울방학 시기 고향인 운암의 간음정 주변의 얼음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동사한 것으로 추정.) - 당시 현장에 알 수 없는 사람 한명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아침에 같이 나왔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짐. -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왔으나 이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 가족들이 고인의 시신 수습 후에 출생지 부근 산에 안장함.	